

北서 보도한 해안포 사격훈련 국방부 “9·19 군사합의 위반”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국방부는 25일 북한 매체가 밝힌 서해 완중구역 일대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역시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 등 서부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해안포 중대원들에게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이다.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는 우리 땅이었지만,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맹수열 기자

방사청, 감항인증심의위 여성위원 윤윤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위촉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감항인증심의위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윤 교수는 지난해 5월 28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와 이종희 항공우주기술원 연구위원과 함께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여성 민간위원으로 임기 2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교수는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항공정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방사청은 “항공·시설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윤 교수는 기존 2명의 민간위원과 함께 민·군 협력 소통 채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용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 인증 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병노 기자 ■ 편집=정임숙 기자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직원 표창

송선일 육군중령·이문관 사무관·윤희진 육군중령 영예

국방부 장비관리과 송선일 육군중령과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 이문관 사무관, 시설기획과 윤희진 육군중령이 올해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직원’의 영예를 안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적극행정 문화 실천에 기여한 직원 3명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성·창의성·적극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직원을 선발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부합하도록 군(軍)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송선일 중령, 군부대에서 업무용 물품을 조달할 때 오프라인 구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인 이문관 사무관, 노후 철책 제거 및 해안경계 과학화 사업을 통한 지

역 상생 여건 조성에 일조한 윤희진 중령이 우수직원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성과급 지급 등급 1단계 상향, 국외 장기 훈련·교육 대상자 선발 및 승진심사 가점 부여(공무원만 대상), 국방부장관 표창·상금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 장관은 “신기술 발전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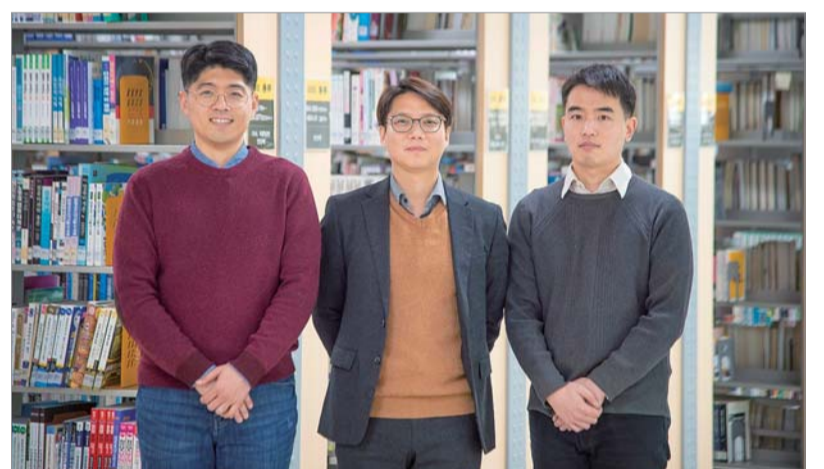
국방대 석사과정 학생장교 논문 우수 국제학술지 게재

서태석 공군소령·전재우 해군소령
SCIE급·SCOPUS급에 각각 실려

국방대학교(국방대)에 재학 중인 학생장교의 논문이 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대는 “컴퓨터공학·사이버전협동을 전공하는 관리대학원 석사과정 2학년 서태석 공군소령과 전재우 해군소령의 논문이 SCIE급과 SCOPUS급 학술지에 각각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서 소령은 ‘An Enhanced Trust Mechanism with Consensus-Based False Information Filtering Algorithm against Bad-Mouthing Attacks and False-Praise Attacks in WSNs’라는 제목의 논문이 지난 16일 SCIE(웹 버전으로 제공되는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 ‘Electronics’의 네트워크 섹션에 실렸다. 또 전 소령이 연구한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Image Steganography-Based Botnet in Kakao Talk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국방대 관리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장교 및 지도교수가 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전재우 소령, 조영호 지도교수, 서태석 소령. 국방대 제공

Openchat’ 논문은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21일 SCOPUS(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급 학술지 ‘Computers’에 게재됐다.

서 소령은 무선센서네트워크(WSN)에서의 내부 공격자 방어를 위한 보안 신뢰메커니즘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고, 전 소령은 최근 해커들이 활발

히 활용하는 정보 은닉기술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석사 1학년 때부터 조기 연구에 착수해 약 1년6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해 왔다. 박사과정이 아닌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서현우 기자 lgiant61@dema.mil.kr

30초 감사 그릿 기개·투지·용기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성공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앤절라 리 덕워스가 젊은 시절 몰두한 주제였지요. 이후 그녀는 미 전역을 돌면서 성공 DNA를 연구했습니다.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지능지수(IQ)도 아니었고, 뛰어난 외모는 더구나 아니었다.” 덕워스는 세계적 지식강연 TED에 나와 마침내 그 비밀을 이렇게 공개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릿(Grit)이다!” 기개, 투지, 용기로 번역되는 그릿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행복 몸장’으로 살고 싶다면 ‘마음 근력’부터 키워야겠습니다. 감사경영연구소 소장 정지환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없이 안심하고 복무하세요!

▶

별도 신청없이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대)
- ▶ **지원금액:**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 ▶ **한국장학재단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 지원체계**

0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정보
병무청에 제공

02 병무청

군복무 정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

0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면제)

학자금 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군복무 이자면제